아낌없이 주는 '老農'의 농사사랑

〈김재식 前 전남지사〉

전남 쌀산업 발전위해 17년 자료·공부방 등 김수공씨에 모두 물려줘

김재식(왼쪽) 전 전남도지사와 김수공 농협구례교육원장이 지난 8일 장성 노농 농사공부방에서 만나 신품종 벼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퇴임 후 장성에서 벼농사 연구에 헌신해 온 '노농'(老農) 김재식(86) 전 전남도지사가 지난 17년 동안 꾸려온 '노농 농사공부방(쌀의 집)'을 김수공(56) 농협구례교육원장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8일 어버이날에 장성군 장성읍 영천 1동 '노농 농사공부방'에서 김 원장과 만나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 삼고, 쌀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63㎡ 규모의 공부방과 모든 자료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지난 5년 전부터 '노농 후원회'를 꾸린 뒤 회장직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조만간 문서협약을 통해 연구회장직에 취임, 전남지역 쌀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매달 세차례 발간해온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정보지 발간과 함께 쌀전업농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쌀농사 공부회' 등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김 전 지사는 "쌀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뜻을 같이한 김 교육원장을 든든한 후계자로 지목해왔었다"면서 "김 원장은 쌀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연구회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김 전 지사는 지난 92년 70세의 나이로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와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쌀사랑을 실천해왔다. 일본을 오가며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 지금은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을 비롯해 장성의 '자운영쌀', 함평의 '나비쌀' 등 25개 유명브랜드를 개발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3월 "아픈 이웃에 새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15년 전인 1994년에 이미 시신기증을 서약한 바 있다"고 밝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김 원장은 "김 전 도지사의 뜻에 따라 농사공부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전남쌀 산업의 계승발전을 물론 농업인의 행복을 창조하는 중심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CT연구원 광주에 설립해야"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 '절대적' KAIST 타당성 조사 용역서 강조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R&D 집중연구기관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CT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CT연구원의 모델은 단일건물 중심의 연구원이 아닌 CT 복합건물(Complex) 형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입지는 국내 최대규모 과학기술 인프라 집적지이며, R&D특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최적으로 신과학권, 시각미디어권, 문화전당권을 연결하는 문화산업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KAIST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이끄는 세 가지의 축을 CT연구원을 비롯,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규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지속 성장 동인, 아시아문화의 허브 구축을 위한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정현 국회의원(한나라당), 조영택 국회의원(민주당)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원광연 KIAST 문화기술대학원장이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정체성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김동현 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원장이 'CT연구원의 설립형태', 구본철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CT연구원 설립의 방향(CT연구원 설립 필요성, 기본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CT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진행하고 유승호 강원대 문화예술대학 교수, 구본철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申 대법관 경고'… 소장판사들 반발 확산

"재판 개입 관련 윤리위 결정에 실망"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대표로 참석했다는 점에서 소장파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연수원 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일선 판사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신 대법관이 문제를 해결할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해명이나 변명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별 요상한 이유를 다 봤다

전기·가스요금 내달부터 인상

전기·가스요금이 다음달 중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전기·가스요금이 원가 보전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상폭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또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말한 상반기 심야전력 7.5% 인상안도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인헬기 띄워 벼 심는다

농진청 벼 직파 시연회

소형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직파 시대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은 11일 오후 전북 익산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시험포장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직파 기술을 선보였다.

농진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동안 농약살포용으로 써온 무인헬기 〈사진〉를 벼 직파용으로 고안해 이날 시연회를 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호품벼와 동진 2호 등의 볍씨를 탑재한 무인헬기 3대가 논(2천여㎡) 3m 위를 날며 볍씨를 살포해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해양 레저타운 신안군에 조성

펜션 등 700억 투자협약

신안에 해양펜션과 요트 계류장, 에너지파크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대한귀 (주)대영종합레저 대표, 권영식 (주)루성 대표, 임흥빈·강성종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9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대영종합레저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굴도에 441억 원을 투자해 7만9천㎡의 부지에 펜션 18동(65실)과 요트계류장, 에너지파크, 바다낚시터, 음식타운 등을 조성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r

1면 '미얀마 난민'서 계속

무엇보다 '불법 이민자'라는 꼬리표는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난민 대부분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소 2~3차례 거처를 옮겨다닐 정도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나마 이 곳에선 안나씨가 설립한 '라이트 스쿨(Light school)'이 유일한 보호시설이자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나씨는 '광주 인권학교' 수료 이후 이 학교의 교재를 '5월 항쟁'으로 삼을 만큼 5·18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안나씨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엔모이(Enmoi·여·20)씨에게 취재진을 소개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로 "코리아, 광주. 테모크라시(democracy)"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안나씨의 '광주 정신' 전파 노력이 이 곳 난민들의 사고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고접수안내
光州日報
구직·분진·모집·초빙·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 e-mail : dd8111@hanmail.net
▶ 직통 : (062) 227-9600
▶ 팩스 : (062) 227-9500

판결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단862

사 건 명 : 위증

피 고 인 : 정 부 란

위 피고인은 위증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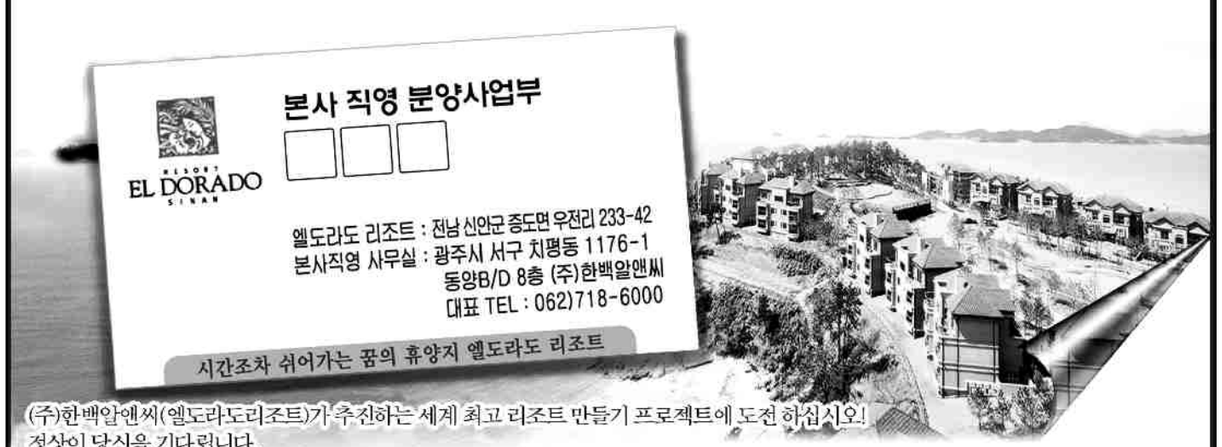
200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안상원

임야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CH중국문화원|광주분원
침구학 아카데미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0기) 5월 22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요녕중의약대학 자격증 및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진료 및 진료상담은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시기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엘도라도 리조트 명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능력과 열정을 가진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한백알앤씨(엘도라도리조트)가 추진하는 세계 최고 리조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전 하십시오!
정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본사 직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자부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부문 분양사업부문 ○○명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AM 10:00~PM 5:00)
▶ 지원자격 30세~, 남 · 여(영업 경력자, 주부사원 환영)
▶ 급 여 기본급+일비+인센티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내사 방문 접수
▶ 접수처 및 근무처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6-1 동양 B/D 8층 (주)한백알앤씨 본사(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 문의 : ☎ 062)718-6000